

6월 민주항쟁 35주년 기념 초대전

이상호, 역사를 해부하다

22.08.04.-10.02.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민족문제연구소 식민지역사박물관



* 평어로 전시를 소개합니다!



안녕! 나는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아지똥이야.
(왜 응가이모티콘을 썼는지는 전시에서 확인해줘!)

우리 박물관에서 새로운 전시회를 여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보고 싶어서 소개하려고 해.

영화 '1987' 봤지?
나는 영화관에서 두 번 봤는데 볼 때마다 눈물이 줄줄 흐르지 뭐야.
올해가 바로 영화 '1987'에 나온
6월민주항쟁이 일어난지 35년째 되는 해래.

나는 그 시위 현장에 있었던 한 화가를 얼마 전에 직접 만났어.





이름은 이상호.

지금은 머리가 희끗한 아저씨지만, 그땐 대학생이었겠지.
영화 속에서 다들 도로로 뛰쳐나와 구호를 외치던 모습 기억해?
그때 이 분은 붓을 들고 있었다. 갑자기 무슨 붓이냐고?
이상호 작가는 시위 현장에서 사용할 걸개그림 같은 것들을 그리며
선전활동을 하셨다고 해.

친구 전정호와 후배들과 함께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라는
걸개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때문에 체포되셨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1호 화가였어.



이게 바로 그 그림이야. 이걸 그리고 잡혀갔던거지.



영화에서 박종철 열사가 모진 고문을 받던 남영동 대공분실,
바로 그곳으로 끌려가서 못지않은 심한 고문과 취조를 당했다고 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고,
고문 후유증 등으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지신거지.

결국 정신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후로 30년간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거듭하며 치료를 받았대.
휴우. 너무 끔찍한 것 같아.



전시 영상 촬영을 위해 남영동에 방문한 작가님의 모습.
공사중이라 안에는 못 들어가보셨대.



만약 내가 그림 그리다가 붙잡혀서 고문을 받았다면
그 후로 그림은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아.
그런데도 이상호 작가는 정신병원에서도,
거길 나와서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시 설치를 하던 날 작가님께 이렇게 물어봤어.
"여전히 그림이 좋으세요?"
작가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전히 그림이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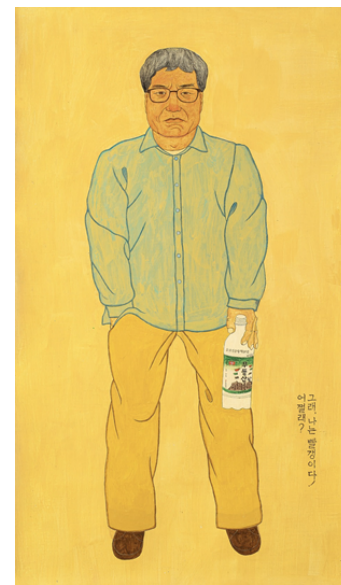


정신병원에서 그렸던 그림들을 바라보고 있는
작가님의 뒷모습 살짝 찍어왔어. 어때?



나는 이상호 작가가 그린 자화상들이 가장 인상 깊었어.
자화상은 화가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거잖아?
그런데 이상호 작가의 자화상은 얼굴이 제각각이야.
작가님은 "나랑 너무 다르죠?"하면서 웃으셨어.
어떤 건 유약해보이고, 어떤 건 굉장히 강한 척하고 있어.

자화상이지만 전부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



더 많은 자화상들은 전시에서 볼 수 있어!



여기까지 들으면 이상호 작가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
처음 이상호 작가의 그림만 봤을 때
나는 그가 엄청 거친 사람일 것이라 생각했거든.
그런데 실제로 만난 이상호 작가는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사람이었어.
심지어는 재미도 있어.

점점 이상호라는 사람이 궁금해지지 않아?
만약 궁금하다면 우리 박물관으로 찾아와 줘.
여러 명이 함께 오면 더 좋아.
이상호 작가는 8월 내내 전시장에 계시면서
직접 작품 설명을 해 주신대.

작품 속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작품 속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상호 작가와 함께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



6월 민주항쟁 35주년 기념 초대전
이상호, 역사를 해부하다

2022.8.4.(목)~10.2.(일)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주최 민족문제연구소
주관 식민지역사박물관
협조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전시 해설 문의 식민지역사박물관 02-2139-0427

방문하는 관람객에게는
이상호 작가의 우표시리즈 엽서를 드립니다!

